
5분 자유발언

- 귀농·귀촌인 정착지원 종합대책 제안 -



고성군의회
(이정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이정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방소멸의 심각한

현실속에서 우리 고성군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길,

즉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정책의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절반 이상 지자체가

인구감소로 소멸 위험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고성군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40%에 육박하고 있으며

청년유출, 일자리 부족, 교육·문화

인프라 부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역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이주지원이 아니라,
“정착 이후의 삶”을 함께 설계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고성군 귀농·귀촌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도시에서 고성으로
귀농·귀촌한 가구는
총 788가구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가 농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는 다시 도시로 떠나는
이탈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세가지 정책 전략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를
활성화 해야 합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귀농·귀촌 준비 단계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상담과 안내 부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주거지 정보 부족, 정책자금
지원제도에 대한 이해 미흡 등
정보 불균형의 문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는 상담, 교육, 정착,
창업, 주거 등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창구가 되어야 합니다.

정읍, 진안, 장수 등 타 지자체에서는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에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체계적인 상담과
교육 및 운영 프로그램을 통해
귀농·귀촌인의 조기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도 귀촌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확충과 예산지원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둘째, “정착형 생활 지원사업” 도입입니다.

귀농·귀촌인이 정착 단계에서는 경제적 불안정을 큰 어려움으로 겪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정착 의지를 잃기 쉽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화폐를 활용한 생활지원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정착 1년차부터 지원금을 지원하되 거주기간이 늘어날수록 지원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장기 정착 유도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가 마련된다면 실질적인 생활 안정뿐만 아니라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것입니다.

셋째, 귀농·귀촌 교육체계를 내실화해야 합니다.
단기 교육중심의 현행제도 이외에
귀농·귀촌의 맞춤형교육과 멘토링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귀농·귀촌 현장에서는 농사 방식과
생활 방식이 농가마다 달라,
주변에서 여러 조언이 쏟아지다 보니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의원 또한 이러한 어려움을
직접 들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귀농·귀촌인이 현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현장학습
전문 멘토를 지정하고,
이들이 지속적인 상담과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장 활동수당과 유사한 형태로 멘토 활동에 따른 월별 보상이나 회당 수당을 지원한다면, 귀농인과 멘토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행정이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한다면, 안정적인 멘토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귀농·귀촌인의 조기 정착에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귀농귀촌 정책들이 실현된다면 정착율은 높아지고, 인구 감소폭 또한 완화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숫자로 인구를 늘리는 정책이 아닙니다.

사람이 머무르고 함께 살아가는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일입니다.

귀농·귀촌인이 우리 고성에 와서
“정착하고 싶다”, “살고 싶다” 라고
느낄수 있는 환경,
그것이 곧 지방소멸을 막는 가장 근본적인
처방입니다.

이제는 “이주지원” 에서 “정착지원” 으로
그리고 “공동체 재생” 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저 이정숙 의원은 앞으로도 우리군이
“귀농·귀촌 성공 1번지” 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